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6권 제4호(2023년 11월)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23;36(4):175-180
pISSN 1738-6640 eISSN 2234-4020
http://www.ood.or.kr
http://dx.doi.org/10.6114/jkood.2023.36.4.175

Case Report / 증례

한의과에서 시행된 지방종(Lipoma)의 수술적 치료 증례

허은나[1] · 권 강[2] · 서형식[2]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1]수련의, [2]교수)

A Case of Surgical Treatment of Lipoma Performed at the Korean Medicine Department

Eun-na Heo · Kang Kwon · Hyung-Sik Seo
Dep.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a case of lipoma removed by surgical method.

Methods : A 69-year-old female was diagnosed with lipoma on the left upper shoulder. Bufonis venenum pharmacopuncture was used for local anesthesia. The 11th blade and the CO_2 laser was used for incision. After removal of lipoma, irrigation with soyeom pharmacopuncture solution and simple interrupted suture were carried out. For 7 days, Yeonkyopaedok-san was given and the suture was removed after 14 days. At last, saengkigo was applied.

Results : Local anesthesia was maintained. Lipoma sized 3.0×1.0×1.0㎝ was clearly removed. Adverse effects were not reported until the clear skin adhesion.

Conclusions : Lipoma were surgically removed without any complications by using pharmacopuncture and oral herbal medicines that have anti-inflammatory effects. Korean medicine has the potential for surgery and needs to extend the range of surgical treatment.

Key words : Lipoma; Surgery; CO_2 laser; Pharmacopuncture

© 2023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Ⅰ. 서 론

지방종에 해당하는 肉瘤는 지방조직이 증가하여 형성된 腫瘤를 말하며, 종괴가 솜과 같이 부드럽고 무덤과 같이 튀어나오는 것이 근육이 융기되는 것과 같다 하여 肉瘤라 한다. 힘을 주어 누르면 손가락 자국을 만들 수 있고 밀면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 시진과 촉진만으로도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종의 크기는 일정한 정도까지 이르고 정지하며 수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으며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보통은 미용상의 문제와 주변 조직과 붙어서 통증이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치료하게 된다[1]. 대부분 외과적 절제술로 치료하며 그 방법에는 단순 절제의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2].

《身機踐驗》에서 "割法, 量肉瘤大小, 剖開翻捲其皮, 一手握瘤, 一手將瘤根, 割斷, 仍放轉外皮連合, 用線縫結"이라고 하여 지방종에 대해 외과적 절제를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과거에는 針(鈹鍼)과 刀를 이용하여 수술이 진행되었고, 비교적 침습적인 割法은 燒烙法, 截法과 함께 刀로 시행되었던 수술법 중 하나이다[4]. 현대에는 의료기기가 발전하여 scalpel, laser, bovie 등이 針(鈹鍼)과 刀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CO_2 laser, Nd:YAG laser, bovie가 절개와 동시에 지혈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연조직 절개에 scalpel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5,6].

양의학계에서는 지방종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보고가 단순 절제 및 지방흡입술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의학계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종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보고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1례의 증례지만 한의사가 최초로 지방종에 대해 외과적 절제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한의학계에 외과술이 더 다양한 질환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Corresponding author : Hyung-Sik Seo,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0, Geumo-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Tel : 055-360-5636, E-mail : aran99@pusan.ac.kr)
• Received 2023/10/6 • Revised 2023/10/25 • Accepted 2023/11/1

Ⅱ. 증 례

1. 성명 : 유OO, F/69

2. 주소증 : 견갑골 좌측 상부에 약 3.0x3.0㎝ 크기의 지방종이 관찰됨. 이 외에는 특이 사항 없음.

3. 진단명 : 지방종(Lipoma)

4. 현병력

상기 환자는 본원 한방내과에 Cholecystolithiasis with cholecystitis로 입원하던 중 좌측 견갑골 상부에 존재한 지방종 제거를 위하여 2023년 4월 26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타과 의뢰됨.

5. 과거력

Diabetes Mellitus, Rheumatoid Arthritis, Acute Pyelonephritis, Osteopenia, Iron Deficiency Anemia

6. 치료 방법

2023년 4월 26일 좌측 견갑골 상부를 촉진 및 시진하였고, 지방종 1개가 관찰되어 진단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Fig. 1). 지방종 절제술 전 지방종의 표피와 주위 조직에 蟾酥약침(대한약침제형연구회) 4㎖를 주입하여 국소마취하였다. 蟾酥약침액 주입 5분 뒤 절개할 부위를 촉진하여 감각의 둔함을 확인하여 마취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11번 blade를 사용하여 횡단으로 3.0㎝ 절개선을 넣었다. 이후 지방종의 상부 부위까지 CO_2 하니매 화레이저(surgical mode/ultra pulse/on time 1000 ㎲, frequency 100㎐, ㈜함소아제약)를 사용하여 절개

후 adson tissue forcep과 iris scissors로 주변 조직에서 지방종을 분리하여 제거하였다(Fig. 2).

지방종을 완전 제거 후 消炎약침액(대한약침제형연구회 제조) 2㎖를 생리식염수 20㎖에 혼합하여 제거 부분의 irrigation 이후 단순 봉합(non-absorbable blue nylon 4-0, ㈜아이리)을 시행하였다(Fig. 3).

수술 후 7일간 3회/일, 식후 30분에 連翹敗毒散(단미엑스산혼합제, ㈜한국신약) 1포(2.91g)를 투약하였다.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회/일 simple dressing 및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고, 퇴원 이후 5월 10일 외래에 내원하여 유합 확인 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Fig. 4).

봉합사 제거 후 生肌膏(부산대학교한방병원 조제)를 도포하였고, 유합부 관리를 위해 환자에게 지속해서 환부에 도포할 것을 교육하였다.

Fig. 1. 3.0×3.0㎝ Sized Lipoma Located in the Left Upper Scapula, April 26th,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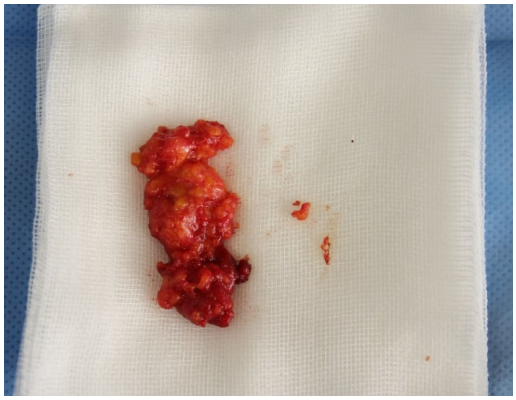

Fig. 2. Extracted Lipoma(3.0×1.0×1.0㎝)

Fig. 3. Single Interrupted Suture Used for Closure

Fig. 4. Closure of Skin after Stitch Out, May 10th,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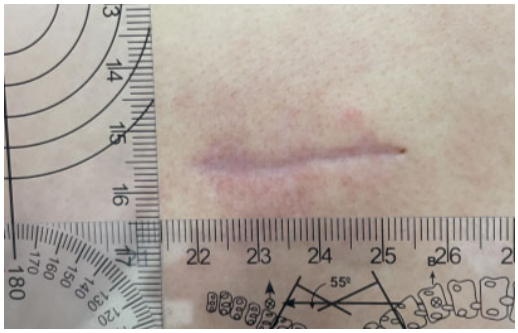

Fig. 5. Closure of Skin after 2 Months from Stitch Out, July 17th, 2023

7. 경과

마취는 지속되어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지방종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수술 후 이상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2주 후 봉합사를 제거하였고, 외용제 도포 이후 수술부 유합이 완전하게 이루

어져 외래 재 내원 시에도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III. 고 찰

지방종(Lipoma)은 성숙한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연부조직에 가장 흔한 생기는 중간엽 유래 종양 중 하나이다[7].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 중년 여성에게 호발하며, 성인에서 몸통, 목, 팔다리에 발생하는 무통성 피하결절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지방종은 양성 경과를 보이며 서서히 커지며 일정 크기가 되면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자란 뒤 미용상의 문제를 유발하거나 주변 조직을 압박하여 통증이나 운동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1]. 지방종의 치료는 보통 외과적 치료가 기본이 되며 그 방법에는 단순 절제, 지방흡입술, cutting curette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며, 단순 절제가 가장 흔히 이용된다[2].

지방종은 肉瘤에 해당하며 《景岳全書·賢集·外科鈐·瘤贅》에서 '鬱結이 脾를 傷하여 肌肉이 消薄할 때, 外邪의 所搏으로 腫이 생기는 경우는 肌肉에서부터 腫起하여 누르면 實軟한데, '肉瘤'라고 한다'라고 하여[8] 그 원인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身機踐驗·瘤論·肉瘤》에서는 '肉瘤는…… 반원 모양이고, 표피는 매끄러우면서 울퉁불퉁하여 평평하지 않으며, 속이 꽉 차있으면서 무겁다.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은 밀면 쉽게 움직인다.', '잘라내는 방법은, 肌肉의 크기를 가늠한 후 외피를 절개하여 까뒤집은 다음 한 손으로는 肌肉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肌肉의 뿌리를 절단하고 나서 외피를 내려서 맞이은 다음 실로 봉합하고 고약을 붙인다.'라고 하여[3] 지방종의 형태와 수술적 치료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蟾酥는 中華大蟾酥 또는 黑眶蟾酥 등 두꺼비과 동물이 분비하는 백색 장액을 가공하여 건조한 것으로 bufalin 성분을 함유하여 마취 효과가 있다. 중국에서는 각종 수술에 蟾酥가 사용되고 있으며[9], 국내에서 또한 蟾酥를 이용한 약침액을 피하에 주입하여 국소 마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보고가 있다[10,11]. 본 증례에서 또한 蟾酥약침을 수술 부위 주변 피하에 주입하여 이상 반응 없이 수술 종료까지 마취가 무사히 유지되었다.

수술 부위 세척에 사용된 消炎약침은 黃連解毒湯에 淸熱凉血藥인 生地黃과 淸熱解毒藥인 連翹, 金銀花, 蒲公英을 가미한 처방이다. 《方藥合編》에서 '外科의 癰腫疔毒질환을 치료한다.'고 기록된 黃連解毒湯[12]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작용을 한다[13]. 또한 淸熱解毒藥이 염증성 질환을 치유한다는 보고가 이미 다수 있으므로[14], 본 증례에서는 黃連解毒湯에 淸熱解毒藥이 가미된 消炎약침을 항생제 및 소염제를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수술 부위 절개에 사용된 CO_2 하니매화레이저는 한의 외치법인 烙法과 동일한 원리로 사용된 고출력 레이저기기이다[10]. 불에 가열한 火針과 烙器를 이용하는 치료 술기를 烙法이라고 하는데, 《中醫外科學》에 "粗針……它借灼烙的作用 代替切開法 幷有防止手術出血之功"이라고 하여 火針烙法이 절개 시 지혈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기록되어있다[15]. 본 증례에서는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절개하기 위해 CO_2 하니매화레이저를 surgical mode의 ultra pulse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외과적 절제술은 봉합부의 이차감염이나 혈종, 장액종 등의 부작용과 비후성 반흔의 위험성이 있다[2]. 連翹敗毒散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처방으로 항생제, 소염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등[10], 정 등[11]의 논문에서 수술 후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봉합부의 유합 및 상피화 촉진을 위해 生肌膏(부산대학교한방병원 조제)를 사용하였는데 生肌膏는 乳香, 沒藥으로 구성된 海浮散(生肌散)[16]을 올리브유에 침출하여 제조한 연고제이다. 海浮散은 '독이 깨끗해졌으면 창구를 아물게 한다.'고 《醫學心悟》에 언급되어 있으며[16], 육아조직 생성을 가속화시켜 창상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17,18]. 또한 乳香, 沒藥은 活血去瘀藥으로서 活血止痛, 消腫生肌 효능이 있으며 동시에 사용되면 효능이 증강되어 止痛의 良藥이 되며, 外科와 傷科의 要藥이 된다[19].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봉합 부위 감염 및 이상 반응 예방을 위하여 連翹敗毒散(단미엑스산혼합제, ㈜한국신

약)을 7일간 투약하였으며 봉합사 제거 이후 生肌膏(부산대학교한방병원 조제) 약 0.25FTU(fingertip unit)를 2주간 1회/일 환부에 도포하였고, 상기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는 지방종을 蟾酥약침을 이용해 국소 마취 후 CO_2 하니매화레이저를 이용하여 출혈을 최소화하여 절제하였다. 또한 항염증 작용을 가진 약물을 환부에 직접 도포 및 수술 후 내복시켜 감염의 위험성을 방지하였으며, 상피화를 촉진해 줄 연고(生肌膏)를 도포하여 수술로 야기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예방하였다. 비록 1례에 불과하나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지방종을 절제하였으며, 이는 외과적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의 잠재력과 역량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과거 문헌에 한의사가 외과적 수술을 했다는 충분한 기록이 있음에도 근현대화 이후 한의학계에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보고는 많지 않다. 특히 양의학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지방종 절제술에 대한 증례보고는 한의학계에 전무하며, 양방의사에 의해 시행된 보고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는 한의사의 치료 가능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적극적인 사용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본다. 따라서 본 증례를 통해 많은 한의사가 외과적 수술 및 처치에 관심을 가져 지방종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대해 한의사의 외과적 치료가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Ⅳ. 윤리적 승인

본 증례보고의 연구대상자에게 사진 및 진료기록의 학술적 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음.

Ⅴ.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3년도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ORCID

Eun-na Heo
(https://orcid.org/0000-0002-1559-4409)
Kang Kwon
(https://orcid.org/0000-0002-7250-2603)
Hyung-sik Seo
(https://orcid.org/0000-0003-2410-4704)

References

1.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Surgery & Dermatology of Korean medicine Vol 1. Surgery of Korean Medicine. Paju:Globooks. 2022:226-8.
2. Park DJ, Park JY, Lee SJ, Na GY, Kim DW, Jeong SL. Treatment of Large Lipoma by Arthroscopic Shaver.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2003;41(10):1347-50.
3. MEDICLASSICS[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cited 2023 SEP 23].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30/volume/5#content_77
4. Pahng SH, Cha WS, Kim NI. A Reserch of Ancient operation through traditional medical document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7;20(2):81-6.
5. Choi JS, Ryu SY. A Comparative study of wound healing after skin incision with scalpel, Co2, and Nd:YAG laser in rats. Journal of Korean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00;22(1):33-42.
6. Pick RM, Colvard MD. Current status of lasers in soft tissue dental surgery. J Periodontol.

1993;64(7):589-602.
7.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Dermatological Society. Textbook of Dermatology. 8th ed. Seoul:McGraw-Hill Education Korea. 2020:660.
8. MEDICLASSICS[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5[cited 2023 SEP 24].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39/volume/47#content_211
9. Lee SH, Choi DY, Baek YH, Lee JD. A Bibliographic Studies on the Bufonis Venenum for Clinical Treatment: Important to Toxicity and Processing.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9;26(1):121-33.
10. Lee DJ, Kwon K, Seo HS. A Case of Epidermal Cyst Using Surgical Method After Bufonis Venenum Pharmacopuncture Anesthesia.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7;30(2):165-9.
11. Jeong MR, Kwon K, Seo HS. A Case Report of 2 Types of Epidermal Cyst Surgically Removed after Bufonis Venenum Pharmacopuncture Anesthesia.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20;33(4):126-32.
12. Hwang DY. Bangyakhappyun. 2nd ed. Seoul:Yeonglim Publishing Inc. 2011:194,264.
13. Yang HJ, Joo HA, Back SC, Park JS, Hong SH. Anti-inflammatory Effects of Hwangnyeonhaedok-tang and Fermented Hwangnyeonhaedok-t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1;24(2):1-15.
14. Jae HK, Ahn JH, Hwang ML, Kim SY, Jung HA. Three Cases of Nummular Eczema Patients Treated with Cheongshimyeonja-eum Gagambang and Soyeom Pharmacopunctur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9;32(2):107-19.
15. Ko BK. Chiness Medicine Surgery. Beijing: People's Publisher. 1987:65.
16. Jeong GP. Uihaksimo. Seoul:Jipmoondang. 2017:364.
17. Lee HB, Lee CW, Lim EC. A Case of Charcot Neuroarthropathy Improved by Korean Medical Treatment Combined with Shudihuangkushen-tang and Haifu-san Wet Dressi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20;33(3):125-37.
18. Wang Y, Zhou J, Yan C. Effects of haifu powder on the number of vessels and collagen content of the new granulation tissue in the dorsal wound of rats. Jili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9;39(3):377-80.
19.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National University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Herbology. Text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Herbology. Seoul:Yeonglim Publishing Inc. 2016:448-50.